

제4실 | 집기류 | 전시해설

N-88 나전 봉황 원무늬 다리 달린 켈

수납을 위한 상자로 다리가 달린 켈을 일본어로 가라비쓰라고 합니다. 이 가라비쓰는 뚜껑 겉면과 몸체, 다리에 두꺼운 야광조개 나전으로 봉황 원무늬를 나타냈습니다. 대담하고 큰 무늬가 뿔어내는 희고 우아한 빛은 검게 빛나는 옷칠과 대조를 이루며, 헤이안시대의 세련된 일본적 미의식을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N-90 상서로운 꽃, 나비, 새를 금은으로 그린 칠피 상자

N-301-1 풀, 꽃, 나비, 새를 금은으로 그린 칠피 상자

바탕이 되는 가죽을 무두질한 뒤 목재 틀에 대고 강하게 잡아당겨서 만든 상자입니다. 칠피 상자의 제작법은 당나라로부터 전해졌고, 나라시대에는 ‘누리노카와바코’라 불리며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N-116 히토리미즈토리타마(구슬)

N-117 이시나토리타마(놀이용 구슬)

N-118 꽃 모양 접시

가마쿠라시대 호류지의 사지(寺誌)에 따르면 이들 물품은 쇼토쿠 태자가 어린 시절에 즐겨 가지고 놀던 것이라고 전합니다. 히토리미즈토리타마(N-116)는 그물 모양 끈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장신구로 쓰인 듯하며, 합 안에 담겨 있는 이시나토리타마(N-117)는 쌍륙과 같은 놀이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도시대 말기 당시, 히토리미즈토리타마(N-116)는 꽃 모양 접시(N-118)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N-92 높은 등잔 받침대

반사판 중앙에 있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철제 고리 위에 등잔을 올려서 사용하였습니다. 반사판은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 바탕에 하얗게 호분(하얀색 안료)을 칠하였고 세 명의 소년을 그려넣었습니다.

N-121 청자 네 귀 달린 항아리

덴표 6년(734)에 고묘 황후가 호류지에 헌납한 정자라는 향료를 담은 용기로서 호류지에 전해져 왔습니다. 내력이 분명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세품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중국 남부산 청자로, 둥글둥글하며 경쾌한 그릇 형태로 보아 당시대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N-99 사자 반예(둥글게 도상화한 문양) 목판

사자를 둥글게 그린 문양을 양면에 조각한 목판으로, 여기에 먹을 칠하여 천에 대고 문양을 찍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문양에는 사자 외에 곰, 긴꼬리닭, 원앙 등의 동물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하급 관리의 무악 때에 입는 복장인 포(袍)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N96~N98 발루 바늘통

물레 돌리기로 원통형 뚜껑과 몸체를 만든 상아제 용기입니다. 새와 짐승이나 풀, 꽃 등의 문양을 발루(撥鏤) 기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발루란 색을 물들인 상아 표면을 칼로 텅겨내듯이 조각하여 문양을 그려내는 장식 방법입니다.